

김은주의 Theme Photo

김은주

Theme

Photo

- 마지막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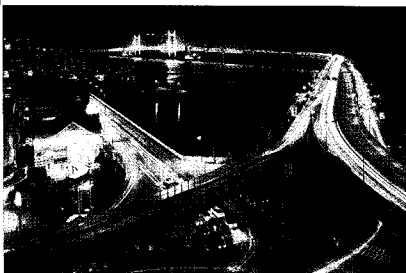
Night View

야경사진은 자연광 일색인 일상의 낮과는 달리 인공광과 자연광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밤의 풍경을 표현한다. 특히, 야경사진은 빛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얼마만큼의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는 촬영이다. 바로 이 문제는 노출시간으로 연결되며 조리개 값을 설정하게 한다. 더불어 작가의 낭만적인 미적 감각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촬영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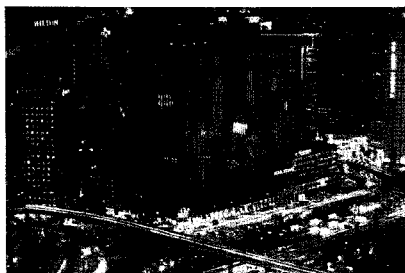
흔들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

야경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액세서리로 삼각대와 릴리즈를 꼽을 수 있다. 야경촬영은 장노출 촬영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삼각대는 지지하중이 넉넉해야 하며 체결력이 좋은 헤드를 선택해야 한다. 또 미세한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삼각대의 센터 컬럼을 연장시키지 않고, 다리는 넓혀서 무게중심을 높여야 한다.

손으로 셔터를 눌리다 보면 카메라에 충격을 주는 일이 발생한다. 셔터스피드가 길면 길수록 그 충격은 더 커진다. 이때 릴리즈가 필요하다. 일종의 리모컨과 같은 역할로 셔터를 누르는 타이밍을 자유자재로 조절하기 용이하다. 또한 미러락업 기능을 이용해 촬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장문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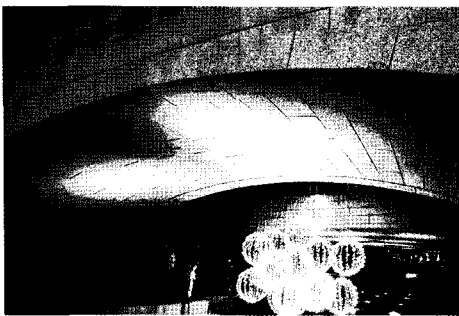
©구교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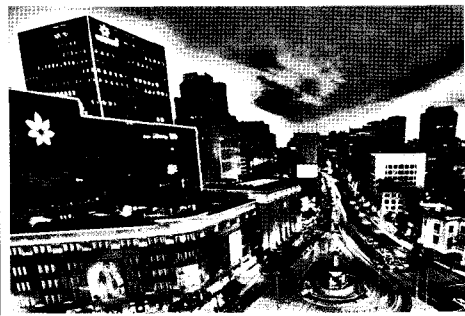
©정재홍

고려해야 할 날씨와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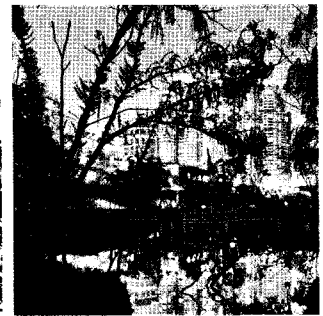
삼각대와 릴리즈가 준비되었다면 촬영하는 장소의 날씨와 시간대를 고려해야 한다.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시정거리가 멀어지거나 제대로 된 색감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촬영 시간대는 해지기 전후의 약 30분 정도가 좋다. 이때를 매직아워라고 하는데 명부와 암부가 골고루 살아 있으며 파란 하늘의 색감이 잘 표현된다. 이보다 날이 더 어두워질 경우에는 암부는 늘어나고 노출 시간이 길어져 화이트 홀이 생겨나기 쉽다. 따라서 일몰 한 시간 전에 촬영 포인트에 도착해 화각과 구도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다.



©조용



©함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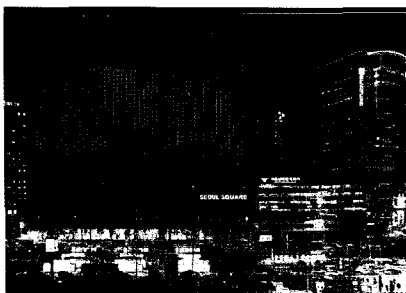


©정재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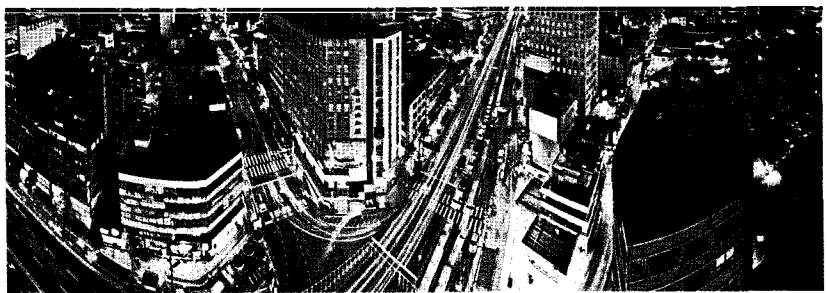
선명한 사진을 얻기 위해

야경사진에서 '빛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의 문제는 노출시간과 조리개값으로 결정된다. 조리개값은 주로 F8~F14 정도이며 섬세한 디테일을 유지하면서 빛 갈림과 선명함을 더해주는 수치이다. 더욱 선명한 빛 갈림을 얻기 위해 F16, 22이상으로 촬영하기도 하는데 노출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 또 감도가 낮을수록 노이즈 없는 깨끗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노출시간은 보통 20초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노출 시간이 길어지면 화이트 홀이 생기기 쉽고, 바람이 많이 불 경우 흔들림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도심의 야경촬영에서는 차량의 궤적 타이밍이 중요하다. 길고 깔끔한 궤적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교통 흐름이 원활한 날과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노출 시간 확보를 위해 ND 필터 사용도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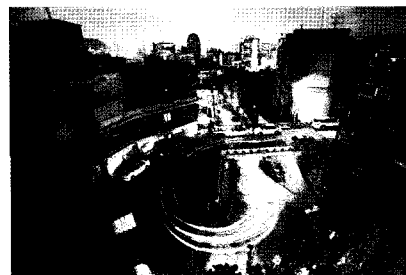
©구교복



©정재홍



©함혜민



©조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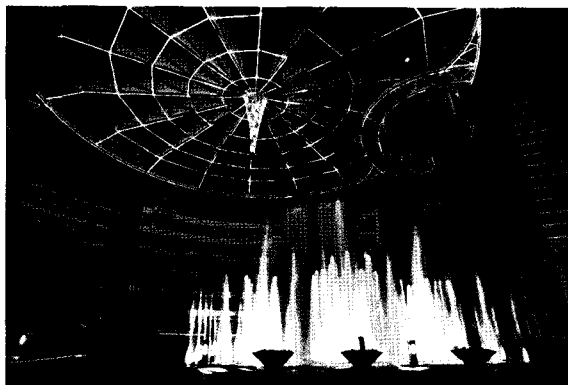
©정재홍

김은주의 Theme Pho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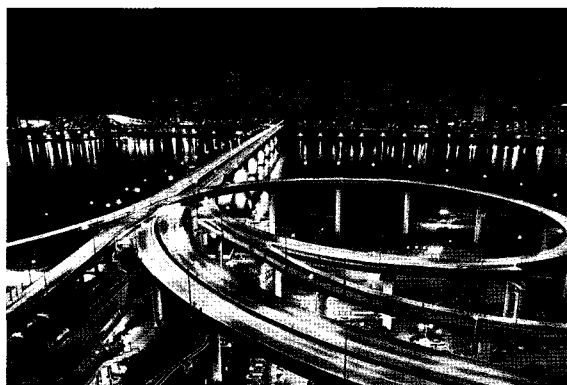
김은주

Theme

Photo



©구교복



©함혜민

불꽃사진

불꽃사진은 예리한 타이밍, 노출조절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높은 난이도를 지닌다. 언제 어떻게 터지는지 예측하기 힘들다. 갑자기 화각을 벗어나는 대형 불꽃이 터져 놓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넉넉하게 프레임 설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불꽃과 야경의 노출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 야경에 노출을 잡았을 경우 불꽃은 노출과다로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 버린다. 이럴 경우 다중노출로 촬영해야 한다. 다중노출은 설정한 횟수만큼 셔터를 개방하기 때문에 여러 장면을 한 장의 사진에 담을 수 있다. 즉 다중노출 촬영시 별브 모드로 야경을 충분히 찍고 셔터를 닫아둔다. 그런 뒤에 불꽃이 터질 때마다 잠깐씩 셔터를 열어주면 여러 개의 불꽃들이 한장면에 담기게 된다.



©장문태



©구교복



©구교복

불꽃놀이에서도 역시 삼각대와 릴리즈는 중요한 액세서리이다. 조리개를 조일수록 감도가 낮을수록 불꽃의 입자는 가늘어진다. 또 셔터스피드가 너무 길 경우는 불꽃의 노출이 오버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별브모드로 3~10초 사이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천체사진

천체사진은 야경사진과 별개로 또 다른 전문적인 분야이기는 하지만 야경사진의 범주에 속한다. 천체사진에서는 크게 고정 촬영과 가이드 촬영으로 나뉜다. 가이드 촬영은 행성, 성운, 은하 등을 촬영하는 적도이나 천체망원경과 같은 고가의 장비들이 있어야 촬영이 가능하다. 35mm DSLR 카메라로 촬영 가능한 고정 촬영은 삼각대에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촬영하는 방법이다. 이 역시 고정 초점방식과 일주촬영방식으로 나뉜다.

고정 초점방식은 지구가 한 시간에 15도씩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여 카메라의 셔터스피드를 짧게 설정해 별이 흐르지 않고 점으로 찍히게 하는 방식이다. 35mm 카메라의 50mm 표준렌즈인 경우 15초 동안은 별이 흐르지 않게 찍을 수가 있다. 광각으로 갈수록 화각이 넓어져 노출시간은 길어지고, 망원으로 갈수록 화각은 좁아지며 시간은 짧아진다. 반대로 일주촬영방식은 노출 시간을 오래 설정해 별이 흐르게 찍는 방법이다. 주로 일주촬영 때는 주변 풍경을 함께 화면에 넣어 찍는 것이 좋으며, 별이 움직이는 방향, 속도 등을 잘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일주촬영방식은 광공해가 심한 도시에서는 촬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산이나 바다, 사막 등지에서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 천체촬영의 경우도 불꽃 촬영처럼 다중노출로 촬영하기도 하며 Photoshop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별의 궤적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구교복



©구교복

사진 제공 | 조용 www.cyworld.com/styleBlog, 장문태 www.kaze.co.kr, 정재홍 blog.daum.net/pimpman74
구교복 www.mrkoo.co.kr, 함혜민 cywolrd.com/berry_hm



김은주

수학과 국어를 좋아했던 유년시절, 사진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중학교 때 발견한 듀안 마이클의 시퀀스 사진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후 대학교에서 사진영상학을 전공했으며 여러 그룹 전에 참여했다. 한 동안 사진 전문 매거진에서 취재 및 사진기자로 근무했다. 최근에는 여러 형태의 전시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리랜서 활동을 병행하며 글을 쓰고 사진을 찍고 있다.